

세계적 반도체설계 기업 '에이직랜드' 광주 온다

광주시, 지역 최초 팹리스 기업 유치...전문인력 양성·취업 지원 협력 전남대·조선대·지스트와 협약...팹리스-팹-패키징 반도체생태계 완성

‘대한민국 대표 인공지능 도시’인 광주시가 지역 최초로 팹리스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대학과 함께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취업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팹리스(Fabless)는 반도체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설계만 하는 기업을 뜻한다.

특히 광주에 동지를 트는 팹리스 기업 ㈜에이직랜드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유일한 국내 협력사로, 광주시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와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25일 시청 비즈니스로에서 세계적 주문형 반도체(ASIC) 디자인 솔루션 대표기업인 ㈜에이직랜드와 인공지능-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214번째 인공지능(AI) 비즈니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이종민 ㈜에이직랜드 대표이사,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김수형 전남대학교 연구부총장, 김상돈 GIST 교학부총장,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오상진 인공지능사업단장, 강현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에이직랜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사와 가장 높은 수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협력사(VCA)다.

㈜에이직랜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대학과 연계한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광주에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해 앞으로 6년간 100명 이상의 지역 인재를 채용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인공지능-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주문형 반도체(ASIC) 설계 디자인 하우스 일자리 창출과 운영을 위한 광주

시 연구개발(R&D)센터 설립 ▲인공지능-반도체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공동 연구개발, 기술지도 자원 및 취업 프로그램 연계 협력 ▲지역 반도체 기업들과 연계사업 추진 등이다.

이종민 ㈜에이직랜드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이 광주가 반도체 및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광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에이직랜드와 업무 협약을 맺은 조선대학교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됐으며, 인공지능-반도체 후공정 분야 고도화에 따른 첨단 패키징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내 파운드리 및 OSAT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19년 전국 최초로 AI융합대학을 설립한 전남대학교 역시 2021년 데이터사이언스전문대학원을 개원하는 등 인공지능(AI) 실무인재와 연구자 육성체계를 갖추고, 전문 인력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반도체공학과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공정-시스템, 설계-시물레이션, 신뢰성 테스트-분석 등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공기초와 전공심화, 융합전공 등 트랙별 실무 교과목을 개발해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석·박사 중심) 및 산학협력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에이직랜드를 유치함으로써 팹리스-팹-패키징에 이르는 반도체 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게 됐다”며 “지역 혁신기관 및 대학이 함께하는 기술 개발, 인력 양상으로 반도체산업의 희망의 꽃을 피우게 돼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분리배출, 자원순환 회수로봇이 '척척' 25일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시민공원 내에서 운영중인 순환자원회수 로봇 앞에 패트병과 캔 등 재활용품을 모아 포인트를 적립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의회 인사 번복·불통 행보 등 '빈축'

신수정 의장, 위원회 추천·의회법 개정 건의안 단독 명의 제출 등 논란

광주시의회의 미숙한 의회 운영이 잇따르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시 금고 심의 위원 추천 과정에 내부 방침을 무시하고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는가 하면, 국회의장에 시의회 건의문을 의회 명의가 아닌 의장 단독 명의로 전달하는 등 사전 상의 없는 불통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신수정 의장이 최근 광주시 금고 심의 위원에 특정 위원을 추천하면서 “내부 방침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금고 위원은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시 금고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는 상임위원 먼저 선정된 뒤 해당 상임위가 내부 논의를 통해 위원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시 금고 선정 위원 2명 추천을 위해 2개의 상임위에 각각 1명씩 추천을 요청했고, 시의회 추천 위원은 선정이 끝난

상태.

시의회는 시 금고 선정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들어 시의회 몫 시 금고 심의 위원 추천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며, 선정 과정도 특정 인사가 아닌 상임위에 위임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신 의장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 내부 방침을 어기고 특정 시의원을 추천하면서, 시의회 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신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의 이름이 시의회 안팎에 나돌면서, 시의회가 그동안 고수해 온 ‘시 금고 심의 위원 비공개 추천’ 원칙도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신 의장은 “의장 몫의 추천권이 있는 줄 알고 ‘시 금고에 관심이 많아 위원을 하고 싶다’는 의원을 추천했다”면서 “배정권이 운영위원회에 있는 것을 안 뒤에는 의견 제시나 추천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 의장은 또 지난 2·3일 열린 ‘국회 광주의 날’

행사에서도 서툰 의회 운영으로 빈축을 샀다.

당시 광주시의회 의장단 등 16명의 시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지방의회 1의원 1보좌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개정 등을 건의했는데, 해당 건의문이 ‘광주시의회 명의’가 아닌 신 의장 단독 명의로 전달된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19일자 시의회 정기인사 발령 때에는 인사 발령 공지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내부 민원 제기로 다시 내리는 촌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충분한 내부 소통 없이 인사를 단행했다가 일부 상임위원부터 항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회 한 관계자는 “신 의장이 의회 운영 원칙을 어기고 상임위원장, 의회사무처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특정 인사들과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밀실 운영’이 가장 큰 문제인데, 신 의장이 의장직을 맡은 이후 의원 간 갈등이 깊어지는 등 내부 분위기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해나 기자 khn@

전남 1인 가구 30만 시대...맞춤형 지원책 '시동'

청년월세 지원·복지기동대 운영 등

전남도가 사회적 위기 및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매년 증가하는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전남도는 25일 “1인 가구 기본 정책 추진, 안정적 주거 및 생활 환경 조성,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돌봄 서비스 지원 등과 관련한 31개 세부과제를 담은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전남도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이사회 지원, 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등에 나선다.

또 1인 가구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여

성의 안심귀갓길 사업 등 방법시설을 확대하고, ‘지역안전주민참여단’ 설치를 의무화해 지역 치안 서비스를 운영한다.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여가생활을 위해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남의 1인 가구 중 노년층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어르신지킴이단’을 운영해 독거노인 등의 무료급식, 안부살피기, 긴급복지 지원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마을·동장단 연합회 생명지킴이의 활동으로 자살 고위험군 발견, 고독사 예방 등 찾아가는 예방적 돌봄서비스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3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남 1인 가구는 29만4583가구로, 일반가구(79만 3249가구)의 37.1%를 차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외국인 비자 개선'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장관상

대구 EXCO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된 총 105건의 규제 개선 사례 중, 예산·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상위 10건이 본선에 올랐으며, 전남은 '외국인 비자 개선을 통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남도는 조선업 등 주요 산업에서 외국인 의존

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일자리 침해 우려로 규제 완화에 신중했던 법무부와 소통하며, 2023년 행안부 주관 전남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와 법무부장관과의 이민국정 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론화하며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주요 개선 사례는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 ▲외국인 고용비율을 내국인의 20%에서 30%로 확대 ▲외국인력

(E-7) 고용비율 산정기준 개정 등이다.

이같은 규제 개선으로 2023년 전국 8940명의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이 연장됐고,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78% 증가한 4055명의 계절근로자가 전남에 입국해 농업 인력난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 2023년 말 현재 전남지역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는 전년보다 97% 증가한 7221명으로,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환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 단 위	모 집 인 원
인문사회	신 학 과	30 / 5
	한국어교육학과	1 /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 5
사범	유아교육과	8 / 2
	예능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1 / 8
총 계		84 / 21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4. 9. 9.(월) ~ 13.(금) · 전 형 일: 2024. 10. 7.(월)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 형 일: 2025. 1. 13.(월)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 9. 9(월) ~ 13(금)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